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게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세계 반도체시장 급속 팽창

세계의 반도체시장 규모는 올해 773억 달러에서 오는 '96년 1,034억 달러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美반도체산업협회(SIA)가 전망했다.

SIA는 세계 반도체교역통계社의 자료를 인용, 올해 세계 반도체 수출은 PC 및 관련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29.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증가세는 향후 몇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SIA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수출은 '94년과 '95년에 각각 878억 달러, 925억 달러를 기록하고 '9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선을 넘어서 1,0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IA는 지역별로 북미지역의 경우 올해 248억 달러에서 '96년 325억 달러로 확대되고, 유럽 반도체시장은 145억 달러에서 185억 달러, 일본시장은 237억 달러에서 310억 달러까지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반도체시장은 올해 35.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14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는데 이어 오는 '96년에는 214억 달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 美 컴퓨터업계 유럽 PC시장 동향

지난 3·4분기중 美컴퓨터업계의 경영실적은 유럽시장의 침체 및 수익률이 낮은 PC시장에 중점을 둔 결과 컴팩을 비롯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현상유지 또는 부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컴퓨터업계 분석가들은 IBM, 디지털 이큅먼트 등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의존해 온 업체들의 수익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10월 14일 발표된 애플 컴퓨터의 실적도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지난해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컴팩 컴퓨터는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휴렛 팩커드도 매출 및 수익 증가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가들은 전했다.

컴퓨터업계의 실적부진은 유럽 컴퓨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3·4분기 초 유럽 컴퓨터시장은 영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컴퓨터업계의 구조변화도 업체들의 실적부진에 영향을 미쳐 PC시장이 메인프레임을 제치고 주요시장으로 부각되고 PC의 가격인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수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모건 스탠리, 딘 워터 레이놀즈社를 비롯한 경영분석회사들의 전망에 따르면 3·4분기중 IBM의 적자규모는 1억 7,4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4분기의 27억 8,000만 달러(구조조정자금 포함)에 비해 크게 호전된 것이지만 그동안의 수익감소세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컴팩 컴퓨터의 매출 및 순이익은 각각 16억 달러, 84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부

터 이어져온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로 나갈 경우 세계시장에서 컴팩의 시장점유율은 현재의 10%선에서 내년에는 1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휴렛팩커드의 매출 및 순이익도 각각 52억 달러, 2억 9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같은 호조는 레이저 프린터의 매출호조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美·日, 電子무역 자유화 共同보조

美國電子協會와 日本電子器械工業會는 최근 전자제품·부품의 무역자유화 실현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이미 합의문서에 서명했으며 일본측도 빠른 시일내에 서명키로 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양국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은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전자제품·부품의 관세철폐 등에 반대하는 유럽공동체(EC)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합의문서는 전자제품·부품산업의 발전과 무역확대가 세계무역 발전을 가져와 다른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양국 정부가 전자부문의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제거,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자유화를 위한 노력엔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명시했다.

미·일 양국은 산업용을 중심으로 컴퓨터·전화기·복사기·반도체 등 약 250개를 품목의 관세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일 관련업계도 전자제품·부품의 무역량이 다른 상품에 비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많은 국가들이 무역 자유화 실현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일업계의 무역자유화 합의는 보호주의 경향이 강한 EC를 무역 자유화 노력에 끌어들

이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美 AV시장 日製영상기기 賣出호조

크리스마스과 연말연시가 성큼 다가오면서 美AV시장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TV 등 영상기기는 수요가 호조를 보여 유통단계에선 특정상품을 중심으로 품귀현상과 함께 재고부족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계 판매회사들은 프로젝션 TV·CD체인저 등 인기상품의 투입을 늘리는 한편 물량확보에 적극 착수했다.

일본 파이오니아社의 신형 프로젝션TV인 '시네마 와이드'의 경우 9월부터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 연말 판매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첨단기능이 탑재된데다 화질이 타사제품에 비해 우수해 판매점·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16대 10.7의 아스펙트比를 갖는 이 TV는 파이오니아社가 자체기술로 독자 개발한 상품으로 지난 6월부터 기종의 다양화도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선보인 기종은 45·50·55인치 등인데 이들 모두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당초 美파이오니아 일렉트로닉스USA社는 지난봄 미국에서도 일본보다는 늦었지만 16대 9기종의 본격 출하됨에 따라 '시네마와이드'의 물량확보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판매를 돌입하자 수요가 호조를 보여 품귀현상까지 표면화 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미국에 출시된 미쓰비시(三菱)의 45인치 탁상형프로젝션TV도 예상밖의 매출호조를 기록하면서 타메이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화면이 대형이면서도 탁상형을 실현한 이 TV는 화질이 우수하고 아이디어가 독특하게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매가격이 천달러를 웃도는 2,999달러에 책정됐어도

매출은 호조, 인기상품이 되고 있다. 미쓰비시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사는 소매점들이 이 상품의 조달확대를 요구해옴에 따라 물량확보에 나서고 있다.

JVC의 55인치형 16대9 와이드스크린TV도 수주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JVC는 지난 5월 美시장에 이 제품을 처음 투입했는데 유통 양판점을 중심으로 납품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일체형VCR에선 샤프의 뷰컴이 잘 팔리고 있다. 샤프는 오디오분야에서도 포터블 라디오세트인·WR-CH600을 199달러에 판매, 히트시키고 있다.

소니는 액정칼라모니터를 탑재한 핸드컴 스냅 'CCD-SC5'을 당초계획보다 빠른 9월부터 출하, 의외의 매출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상품들은 판매점·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 차별화를 꾀한게 특징으로 분석됐다.

5. 새 국제수출통제기구 창설추진

내년 1월 안으로 기존의 對공산권수출 통제 위원회(COCOM)를 대신하게 될 새로운 국제 수출통제기구가 창설될 것이라고 미국의 한 관리가 밝혔다.

이 새 국제기구는 러시아와 기타 舊소련공화국들은 물론 동구권국가와 중국에게도 가입 문호를 개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COCOM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리에 본부를 둔 COCOM은 냉전이 시작된 이후 전략물자의 대공산권수출을 통제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미관리는 이 새로운 기구에 대한 논의가 오는 1월중순 클린턴 미대통령과 엘친 러시아대통령의 모스크바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관리들은 러시아가 창설멤버로 포함되는 이 새로운 국제기구는 제3세계와 테러리스트

국가에 대한 무기확산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COCOM에는 아이슬란드, 일본 및 호주를 제외한 모든 NATO회원국들이 참가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수출통제기구의 창설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이 기구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수년전 러시아를 COCOM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는 美부르킹스연구소의 대외정책책임자인 존 D 스타인브루너박사조차도 서방국가의 핵심그룹은 러시아가 정식회원자격을 갖는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계속 차별화정책을 고수할 경우 러시아와 함께 협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다른 미우방국들도 새로 창설된 기구의 핵심조항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6. 日, ISO 9000 인정기관 發足

품질보증의 국제규격 ISO9000의 심사기관을 인정해주는 '일본품질시스템심사 등록인정협회'가 11월 정식 발족될 예정이다.

ISO9000시리즈는 歐美에서 거래조건으로서 의무화되는 케이스가 많아 작년부터 일본의 전기·기계등 유력 수출메이커간에 인정취득 붐이 일고 있다. 이에 대응, 일본의 업계단체 등이 歐美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심사를 한 기관을 설립하는 등 심사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ISO9000 인정기관은 1개국 1개기관이 원칙이다. 일본내에서 인정기관이 기능하면 심사활동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經團連이 중심이 되어 처음으로 인정기관을 설립케 됐다.

인정은 심사기관 인정과 심사원의 인정으로

이원화된다. 각 심사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심사원의 인정 방법이다.

인정기관 설립으로 일본규격협회·일본전기용품시험소·일본해사협회 등 약20개 단체가 인정 신청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 심사원의 인정신청은 수백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사기관가운데는 기계전자검사검정협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일본품질보증기구(JQA, 도쿄)와 같이 歐美에서 인정을 받은 심사원을 70명 가까이 확보하고 있어 “연간 1천건의 심사를 목표하고 있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는 기관도 있으며 이번 신청과 관련해서도 “현재 국제규격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인정기관에서 심사원의 인정을 받게되면 인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희망에 따르지 못하는 사태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각 심사기관은 심사원에 대해선 폭넓은 인정 취득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해외보다 대폭 조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일본검사QA)는 의견도 있다. 새로운 인정기관이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 日, 오디오 3개상품 需要회복

최근 일본에선 소형 세트스테레오·CD라디오카세트·헤드폰 스테레오 등 오디오관련 3개상품의 수요가 본격 회복되고 있다.

지난봄 취학시즌을 계기로 수요가 늘기시작, 4~9월엔 출하대수가 전년동기 실적을 웃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소형 세트스테레오는 두자리수 신장률을 보이는 등 근래에 보기도문 매출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요 신장률이 연말까

지 지속되면 이들 3개 상품의 연간 출하대수는 모두 전년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일본 관련업계는 예측했다.

그러나 이같은 출하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계속 하락, 약 10%정도의 매출액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오디오상품 수요는 최근 몇년동안 전년수준을 계속 밀들었다. 이 가운데 소형스테레오는 '88년, CD라디오카세트는 '89년, 헤드폰스테레오는 '90년에 각각 사상최고치의 출하대수를 기록한 뒤 감소국면을 지속해 왔다.

올들어서도 1·4분기엔 10%전후의 마이너스성장을 했는데 이중 CD라디오카세트가 전년동기비 15%, 헤드폰 스테레오가 4%, 소형스테레오가 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진한 오디오수요는 지난봄 신학기 개시를 계기로 개선되기 시작,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일본 가전업계에 희망을 안겨줬다.

수요 회복으로 4~9월중 출하는 소형스테레오가 전년동기비 16% 증가한 것을 비롯 CD라디오카세트와 헤드폰스테레오도 각각 3%와 1% 늘어나는 등 상승기조를 보였다.

봄이후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1~9월중 출하대수는 소형스테레오가 118만대로 전년동기비 6% 증가했다. 또한 헤드폰스테레오는 256만대로 전년수준을, CD라디오카세트는 221만대로 4%감소에 그쳤다.

하지만 오디오부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해까지 급신장해 온 CD포터블플레이어는 지난 1·4분기 13% 신장했으나 4~9월중엔 지난해 수준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1~9월중 출하대수도 98만대로 5%증가에 머물렀다.